

일본 초등학교 미술교과과정에 도입된 대화형 미술 감상법의
이론적 배경 및 실천 방법 고찰

'Consideration On Theoretic Background and Practice Method of Interactive Art
Appreciation Method Adopted In Japanese Elementary School Art Curriculum'

이 봉 녀

중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Lee bong-nyeo

Joongbu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대화형 미술 감상법의 이론적 배경

- 2-1. 하우젠의 심미적 발달 단계 이론
- 2-2. 하우젠의 VTS 교수방법
- 2-3. 아레나스의 대화형 미술 감상법

3. 대화형 미술 감상법의 실천방법

- 3-1. 일본의 2008년 소학교 학습지도 요령
- 3-2. 일본의 도공·미술 교사들을 위한 실천 가이드북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미술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특히 미술과 수업에서 감상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아동들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미술 감상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왔다.

이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미술 교육과정에서 표현활동에 치우친 반면 감상영역에 대한 활동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고찰해보므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미술 감상법의 한 가지로 현재 일본 초등학교에 도입되고 있는 아멜리아 아레나스(Amelia Arenas)의 '대화에 의한 미술 감상법'을 소개하고, 또 그것을 10년 간 지속적으로 연구·실천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대화에 의한 감상 교육 : 도공(圖工)·미술교사를 위한 실천 가이드 북'을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활용 자료로써 첫째, 감상법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아비게일 하우젠(Abigail Housen)의 '심미적 발달 단계 이론(Aesthetic Stage Theory)'과 '시각적 사고 전략(VTS; Visual Thinking Strategies)' 교수방법과 둘째, 일본 내에서 대화형 미술 감상 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본 문부과 학성이 발표한 새로운 '소학교 학습지도요령'에 관하여 논한다.

'대화형 미술 감상법'이 우리나라 학교 미술교육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일본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에서 활용중인 '대화에 의한 감상 교육 : 도공(圖工)·미술교사를 위한 실천 가이드 북'의 고찰을 통하여 '대화형 미술 감상법'이 학교 미술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우리나라에 활용되기 위해서 어떤 실천 방법이 요구되는지를 논한다.

첫째,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맞도록 내용을 재구성한다. 둘째, 미술교육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 감상 지도 자료로서 개발·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되어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는 교육 특성상 모두 미술 전담교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활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미술교육 현장에서의 보다 빠른 실천으로 실천의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속적인 연구과정을 통하여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미술 감상교육, 심미적 발달 단계 이론, 시각적 사고 전략, 대화형 미술 감상법

Abstract

The paradigm of art education is being changed along with the change of times.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appreciation education is being highlighted even more in the art education so that an effective art appreciation education method which is helpful for improving creativity of children has been studied and practiced on a continuous basis.

To meet the needs of this change, this study is trying to consider a curriculum which is being applied in Japan to derive its suggestions in order to search for plans to make improvement on the problems that are created because the activities on the field of appreciation is lacking while the elementary school art curriculum of our country is leaned toward the expression activity.

Accordingly, the 'art appreciation method by interaction' which is being adopted to elementary schools in Japan at this time as one type of effective art appreciation method is introduced and also based on analyzed results of researching and practicing it on a

continuous basis for 10 years, we are trying to present the 'appreciation education by interaction 'Appreciation Education by Interaction: The Practical Guidebook for Pottery Art Teachers' as a practical material of education scenes in our country.

For the practical materials, the Aesthetic Stage Theory of Abigail Housen and VTS (Visual Thinking Strategies) instruction methods that had become a theoretic background of appreciation method is discussed first while the new 'primary school study guidance method' announced by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d become an opportunity to accelerate in the research and practice of interactive fine appreciation education within Japan is discussed second.

For the 'Interactive Art Appreciation Method' to be applied in school art curriculum of our country, a practical plan for practice is necessary. Accordingly, what methods of practice are required for the 'Interactive Art Appreciation Metho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n objectives and details of school art curriculum as well as being applied to our country will be discuss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Appreciation Education by Interaction: The Practical Guidebook for Pottery Art Teachers' which is being applied to elementary school fine art curriculum of Japan at this time.

First, the contents are reorganized to be appropriate for educational scenes in our country through data analysis. Second, the contents must be diffused to frontline schools by being developed and produced as appreciation instruction materials through art education related research institutes. Third, because art is not entirely taught by full time art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due to the its nature of education, the education targeting teachers must precede for a satisfactory performance of education.

Thus, the problems that can be created at the scene of practice would have to be improved and developed through a continuous process of research by a faster practice in elementary school fine art education scenes of our country.

Key Words

Art Appreciation Education, Aesthetic Stage Theory, VTS; Visual Thinking Strategies, Interactive Art Appreciation Method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를 일컬어 지식기반사회라고 한다. 이는 미래사회는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활동기반이 새로운 지식·정보·기술에 의해 전개되는 사회적 특성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간상은 창의적인 인간형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술 교육에서도 이러한 인간상을 형성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미술교육은 전문적인 미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동들이 미적 체험을 통해 미적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정서를 순화시키며 다양한 창의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으므로 창의적 표현이나 창의적 계발을 위한 새로운 지도 방법 및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¹⁾

한편, 미술교육 방법은 크게 표현영역과 감상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언제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술교육은 교육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감상영역보다는 표현영역의 수업에 치우쳐 있었다. 창의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미술교육이 단순히 그림 그리는 실기 위주의 수업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변과목으로서의 인식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교육에서 창의적 인간,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에서의 감상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아동들의 창의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미술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미술 감상 교육 방법, 감상교육을 위한 시수 부족, 교사용 지침서 및 지도용 자료의 보급 부족, 감상지도는 어렵다는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미술 감상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왔고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들이 확산되어 왔다.

일본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발표 이후 미술 감상을 미술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아멜리아 아레나스 (Amelia Arenas, 이하 아레나스로 칭함)의 '대화형 미술 감상 프로그램'을 지속적

1) 임창재(2005), 교육심리학, 학지사, p.227

으로 연구하고 실천한 결과 미술 감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대화형 미술 감상 교육 : 도공·미술교사를 위한 실천 가이드 북(이하 '교사를 위한 실천 가이드 북'으로 칭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방법은 일본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미술 감상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해 가는데 주축이 되고 있으며, 교육결과에 대한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들이 연구결과로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교육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화형 미술 감상법'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대화형 미술 감상법을 실천하기 위한 '소학교 학습지도 요령'과 '교사를 위한 실천 가이드 북'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미술교육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된 자료는 일본 게이오 대학(慶應義塾大學)과 단교사(淡交社)가 공동주최한 아레나스의 '대화형 미술 감상 워크샵' 자료, 관련 서적, 선행 연구 논문,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대화형 미술 감상법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이며 미학자인 아비게일 하우스젠(Abigail Housen, 이하 하우스젠으로 칭함) 심미적 발달 단계 이론 둘째, 아비게일 하우스젠의 VTS(Visual Thinking Strategies) 감상이론, 셋째 하우스젠의 이론을 바탕으로 뉴욕근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이하 MoMA로 칭함)이 개발한 방법이며, MoMA에 의해서는 물론, MoMA의 스탠포인 아레나스에 의해서 각국에 소개된 VTC(Visual Thinking Curriculum)에 의한 '대화형 미술 감상법'에 대하여 고찰한다.

대화형 미술 감상법의 실천방법은 첫째, 대화형 미술 감상 교육의 연구와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새로운 '소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대하여 고찰하고 둘째, 대화형 미술 감상법을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에노 코우이치(上野行一, 이하 우에노로 칭함)의 '교사를 위한 실천 가이드 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대화형 미술 감상법의 이론적 배경

1997년 일본의 가와무라기념미술관(川村記念美術館) 갤러리 토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일본의 전국 초등학교에 까지 대화형 미술 감상이 유행하고 있다.

이 대화형 미술 감상법은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이며 미학자인 아비게일 하우스젠의 '심미적 발달 단계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대화형 감상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인 VTS를 개발하였다. 먼저 하우스젠의 '심미적 발달 단계 이론'에 대해서 고찰한 다음, VTS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하우스젠의 심미적 발달 단계 이론

1970년대에, 아비게일 하우스젠은 감상자들은 미술 작품을 '단계들(Stages)'이라 불리는 예측 가능한 패턴들에 따라 이해함을 입증했다. 그녀는 관객들이 -의식 흐름의 독백 속에서-이미지에 대해 얘기하고, 모든 생각, 관계, 그리고 관찰들이 분석될 때, 상이한 단계들이 명백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우스젠은 심미적 단계를 5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1~2단계는 초심자 단계이고, 3~5단계는 숙달자 단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 단계는 상호 관계된 속성들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각 단계마다 이미지의 느낌을 생성하는 고유하고 독특한 방법들이 적용된다. 각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설명적)

설명적 관객들(viewers)은 서술자(storyteller)이다. 그들의 느낌들, 기억들, 그리고 개인적 연관성들을 이용하여, 그들은 미술작품에 대해 이야기 속으로 짜넣어진 구체적인 관찰들을 한다. 여기서, 판단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들에 기초한다. 감정은 마치 관객이 미술 작품 속으로 들어가고, 다 전개되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처럼, 관객들의 설명에 색을 입힌다.

제2단계(구축적)

구축적인 관객들은 그들 자신의 인식, 그들의 자연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도덕적이고 현대적인 세계의 가치들과 같은 가장 논리적이고 접근 가능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미술 작품의 관찰을 위한 틀을 세우는 것에 관해 노력한다. 만약 작품이 그들이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경우-즉, 기능, 기술, 기법, 고된 작업, 실용성, 그리고 기능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제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경우, 이 때 관객들은 이 작품을 불가사의, 부족한 것, 혹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어떤 것이 현실적인가에 대한 그들의 느낌은 종종 가치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이다. 감정이 숨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관객들은 그들 자신을 미술작품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제3단계(분류적)

분류적 관객들은 미술사가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견지를 취한다. 그들은 장소, 학교, 스타일, 시대, 그리고 기원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그들은 그들이 준비되어 있고 확장하기 쉬운 그들 자신의 사실과 형태의 지식원을 사용하여 작품을 해독한다. 이 관객들은 적절하게 분류된 미술작품의 의미와 메시지가 설명되고 합리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제4단계(해석적)

해석적 관객들은 미술작품과의 개인적 조우를 추구한다. 작품을 탐색하고, 그들의 의미가 천천히 풀려 나오도록 하면서, 그들은 선과 형태와 색상의 섬세함을 감상한다. 이제 비판적인 기술들은 이 관객들이 작품의 의미-그것이 상징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에, 느낌과 직관의 공헌 속에 묻힌다. 하나의 미술작품과의 각각의 조우는 새로운 비교들, 통찰들, 그리고 경험들을 위한 기회를 나타낸다. 미술작품의 정체성과 가치를 아는 것은 재해석의 대상이 되며, 이 관객들은 기회와 변화의 대상이 되는 그들 자신의 과정들을 알고 있다.

제5단계(재창조적)

재창조적 관객들은, 관람과 미술작품에 대한 반영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자진해서 의혹을 중단"한다. 친숙한 그림은 절친하게 알고 있고, 그림에도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일 주목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상승하는 수준 속에도 존재하는 오랜 친구와 같다. 모든 중요한 우정 속에서와 같이, 시간은 5단계의 관객들이 작품의 생태, 즉 그 시대, 그 역사, 그 질문, 그 여행, 그 복잡성을 알도록 해주는 핵심적 요소이다. 특별한 한 작품과 일반적인 관람을 그들 자신의 역사 속에 그려 넣으면서, 이 관객들은 개인적 주시를 보편적 관심을 폭 넓게 둘러싸고 있는 관점들과 결합시킨다. 여기서, 기억은 개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복잡하게 결합하면서 그림의 풍경을 불러 넣는다.2)

하우젠의 단계별 분석에 의하면, 이와 같은 5가지 단계에서 초심자 단계와 숙달자 단계는 작품을 감상할 때, 기존에 있던 지식만으로 판단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품을 알고 작품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어 해석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3)

2-2. 아비게일 하우젠의 VTS 교수방법

VTS(Visual Thinking Strategies)는 하우젠과 그

2) <http://www.vtshome.org/pages/art-aesthetic-development>

3) 奥本素子(2006), 協調的對話式美術鑑賞法:對話式美術鑑賞法の認知心理學分析を加えた新仮説. 大學美術教育科 教育研究報告, Art Education(27), 美術科教育學會, p.97

동료 연구자인 필립 예나윈(Philip Yenawines)이 만들어 낸 감상법이다.

대화형 미술 감상법이라는 용어가 주는 뉘앙스로만 본다면, 학생의 상상력이나 발상,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느긋하게 작품을 즐기는 감상법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VTS는 단순히 감성 기반의 감상법이 아니다. 감상자의 작품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상자 중심의 대화형 미술 감상 커리큘럼이자 교수방법인 것이다.

VTS방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하면서 수집한 수천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VTS 방법은 다음과 같은 9가지 측면에서 미술 감상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4)

첫째, 미술 작품을 비평적으로 사고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시각적 판별 능력들을 개발하는데 활용한다.

둘째, 교육자들에게 시각 예술 작품의 학습자 중심 토론을 장려하도록 요청한다.

셋째, 학습자들을 시각 예술 작품을 통해 시험 및 의미 창출의 엄격한 과정으로 끌어 들인다.

넷째, 관찰 능력, 증거적 추론, 그리고 사색적 능력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다섯째,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법들을 찾을 수 있는 의지력과 능력을 길러준다.

여섯째, 촉진된 토론을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도 다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과 그 너머로 전이시킬 수 있는 정중하고, 민주적이며, 협력적인 문제 해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이용한다.

일곱째, 구술 언어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보다 쉽고 신중한 참여와, 구술적인 것에서 쓰기 능력으로의 전이를 지원하기 위한 쓰기 과제를 활용한다.

여덟째, 초보적인 비영어권 언어 학습자들이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창출한다.

아홉째, 미술에 대한 연계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삶에 있어 가치 있는 자원으로 미술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커리큘럼이자 교수 방법이 된다.5)

이러한 하우젠의 VTS 감상이론은 피아제의 발달이론과 구성주의 이론, 비고츠키의 언어-사고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피아제(Jean Piaget)는 인간의 사고나 인식은 단계

4) 하우젠은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VTS를 경험하게 하고 한 그룹은 VTS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 후 커리큘럼의 중간과 종료 시에 회화 감상 능력을 테스트한 결과, VTS 실험군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감상 능력이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5) <http://www.vtshome.org/pages/what-is-vts>

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물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험과 지식을 단계적으로 쌓아 그때그때, 자신의 이해력을 발달시킴으로서, 인간의 이해나 사고는 진화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하우젠은 미술 감상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처음부터 미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어떤 숙달된 감상자라도 초심자의 단계를 거쳐 작품 감상 경험이나 작품 이해를 위한 지식 등을 쌓음으로써 풍부한 감상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종래의 감성 기반의 감상법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하우젠은 교육 방법을 피아제의 구성주의에서 이끌어냈다. 구성주의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어 사고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론이다. 즉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나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가르치거나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자신이 해석하고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미술 감상에 적용시켜 보면, 깊이 있는 미술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로부터 주어진 지식을 늘려 가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 스스로가 작품을 이해하여, 그 자신의 해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미술 감상 방법이다. 피아제는 학습이나 인식과 같이 이해와 관련된 행위에는 인식자 스스로가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주체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하우젠은 감상자가 주체적으로 작품의 관찰과 해석을 행할 수 있도록 VTS 교수방법의 질문을 만들었다. 이 감상법에서는 감상자가 작품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며, 질문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감상자가 작품을 관찰하고 자신 힘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⁶⁾

VTS 교수방법에서는 교사들에게 3가지 개방적인 질문들을 활용하도록 요청한다.

우선 「작품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What's going on in this picture?」라는 작품의 내용에 대한 질문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What do you see that makes you say that?」라는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반응에 대한 질문, 「그 밖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What more can we find?」라는 질문과정을 통해 관찰과 해석이 확장되도록 이끌어간

6) 奥本素子(2006), 協調的對話式美術鑑賞法:對話式美術鑑賞法の認知心理學分析を加えた新仮説. 大學美術教育科 教育研究報告, Art Education(27), 美術科教育學會, pp.94-96

다.

반면에 학생들에게는 5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미술 작품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과 둘째, 그들이 관찰한 것에 대해 말할 것, 셋째 그들의 생각을 증거로 뒷받침한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듣고 고려하고, 다섯째 많은 가능한 해석들에 대해 토론한다.⁷⁾ 이렇게 감상자들은 서로의 해석을 토론하거나 자신의 해석을 발표하거나 평론을 쓰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감상 행위에의 반성과 발전을 보다 심화시켜 간다.

한편 하우젠은 사회구성주의의 대표적인 심리학자인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⁸⁾의 생각도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커리큘럼에 반영한 것은 아니며, 언어가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유효하다는 개념만을 차용한 정도이다. 언어란 우리의 사고를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비고츠키가 언어를 사고의 발달과 연관시킨 것은, 언어가 사회에 정보를 전하고, 사회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에 필수불가결한 틀이었기 때문이다.

아레나스의 대화에 의한 미술 감상은 하우젠의 VTS 커리큘럼에서 '교사의 3가지 질문사항'과 '학생들에 대한 5가지 요구사항'을 도입하여, 감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심미적 발달단계' 이론에서는 초심자 단계인 '1, 2단계'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레나스의 워크샵에서는 시작 전에 작품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진행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한 어떤 외부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아레나스의 대화형 미술 감상법

2-3-1. 대화형 미술 감상법의 도입

일본에서 대화형 미술 감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2년 이래, 새로운 학습 지도 요령에 의해 감상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7) <http://www.vtshome.org/pages/what-is-vts>

8) 비고츠키(1896~1934)는 소련의 심리학자로 인간에게 고유한 도구인 언어의 사용, 추상적 사고, 수의적(隨意的)·의식적 행위 등의 고차정신기능은 역사적·사회적 기원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발달심리·아동심리·교육심리학·결함학(缺陷學) 언어심리학의 분야에서 독자적 이론을 전개하여 현대 소련 심리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http://kr.dictionayr.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p=%EB%B9%84%EA%B3%A0%EC%B8%A0%ED%82%A4&subtyp=enc&pk=14322100&field=id>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아레나스에 의해 대화형 미술 감상법이 소개되어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아레나스의 대화 형식의 감상법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배우는 '살아있는 힘'의 육성을 중심 이념으로 내세운 교육개혁의 구체상을 훌륭 할 정도로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혁에 앞서 약 4반 세기 전, 미국에서는 이미 감상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980년대에 왕성하게 논의되었던 DBAE(Discipline Based in Education)⁹⁾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게티 센터(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DBAE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아레나스도 멤버의 한 명으로서 참가하였으며, NTIEVA¹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미술관/학교 콜라보레이션·센터의 구상, 행동, 검증과 관계되는 역할을 해왔다.¹¹⁾ 하우젠의 '심미적 발달 단계 이론'을 바탕으로 MoMA가 개발한 감상법의¹²⁾ 경우에도 MoMA에 의해서는 물론이지만, MoMA의 스태프인 아레나스에 의해 세계 각국에 소개되었다.

일본에는 1990년 후반에 아레나스의 『왜, 이것이 아트인가?』라는 프로젝트 이후, 후쿠노리코(福のり子)와 우에노에 의해 보급 활동이 진행되기¹³⁾ 시작하여 지금은 미술관 뿐 만 아니라, 일본 전국 학교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되었다.

이처럼 '대화에 의한 미술 감상법'이 오늘날 일본 전역에 붐이 일고, 미술관과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게 된 것은 하우젠의 '심미적 발달 단계'이론과 VTS 대화식 미술감상 교수방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육·인지심리학이라는 체계적인 학문적 배경과 그 이론의 검증을 위한 20여년에 걸친 실험 결과에 의한

9) DBAE는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의 약어로 네 가지 영역인 미술사(Art History), 미술비평(Art Criticism), 미학(Aesthetics), 미술제작(Art Production)을 포함한 통합된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델을 제시한 학자가 아이스너(E. W. Eisner)이고, 1984년에 Dwaine Greer가 발표한 잡지 소논문에서 미국 미술교육 분야의 전문용어로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DBAE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개념이 아니며, 특히 훈련 내지는 이해에 근거한 미술교육이란 뜻으로 아이스너와 그리어의 미술교육 사상을 주축으로 1982년부터 미국의 풀 게티 재단(Paul Getty Trust)이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는 미술교육 운동이다.

10) North Texas Institute for Educators on the Visual Arts

11) <http://artmanabi.main.jp/pg100.html>

12) 하우젠의 「심미적 발달단계」이론과 VTS 교수방법을 기반으로 MoMA와 대화형미술감상법의 고안자이며, 실천자인 아레나스가 공립초등학교 교사 75명과 아동 약 3500명을 대상으로 한 VTC(Visual Thinking Curriculum)제작에 참가했다.

13) 吉田貴富(2008), 初等教員養成における教科教育法の授業に関する実践的考察, 大學美術教育科 教育研究報告, Art Education(27), 美術科教育學會, p.618.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2. 대화형 미술 감상법

대화형 미술 감상 프로그램은 교사의 설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배우는 수업 방식이다. 즉 주어진 과제가 아니고 학습자 스스로가 발견하고 관심을 가진 과제를 수업의 참여자 모두가 함께 생각하며 공동으로 지식을 구성해 가는 수업이다. 단지 미술작품과 관련된 역사나 고유의 정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 사고방식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나 가치의식을 깊고 넓게 하는 것이 대화형 미술 감상 교육의 목적이다.

또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경험은, 인성교육이나 인간관계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경험이 된다. 즉, 대화에 의한 감상은 단지 미술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 이 사회를 풍요롭게 사는 힘을 기르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우에노는 미술을 통한 인간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관중이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창출해 가는 것이라는 개념이 기본 미학이다. 그래서 학생과 관중들이 감상을 통해서 관찰하는 힘과 판단력, 그리고 비평력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레나스의 대화형 미술 감상법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림1과 같다.



[그림1] 대화형 미술 감상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즉 아레나스는 미술관이나 학교에서 실제 작품이나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참가자와 작품을 보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첫째, 관중의 의견을 수용하고, 둘째, 관중과의 상호 대화를 조직화하고, 셋째, 관중의 의견에 대해서 발전적인 변화를 촉진한다.

언제나 그는 감상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첫째, 작품을 잘 보도록 권한다. 둘째, 관람자들이 먼저 자기 본 대로 생각하게 한 뒤 셋째, 왜 그렇게 보였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또한 관중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가요?」, 「그렇지도 몰라요」 등으로

반응함으로써 관람자의 생각을 긍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관람자들은 교사나 미술관 스태프들의 그러한 반응으로 인해 용기를 얻어 자신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경청하며 수용하게 된다. 직접 작품을 감상하면서 본 것을 서로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잘 보고 생각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경청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보는 눈이 깊어지고 나아가 새로운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와 미술관의 스태프들은 감상자에게 미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주입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점이 관중에게 배운다는 생각의 원점이며, 감상교육의 출발점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¹⁴⁾

아레나스는 교사들에게 1주 1회, 한 시간, 교실의 책상 위에 어린이들을 앉히고 슬라이드로 미술작품을 보여주면서 자유롭게 대화하도록 권한다. 그때 교사는 작품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는다. 교사는 철저히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져 어린이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첫째, 「이것은 무엇일까?」 혹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리고 다음 어린이 대답에 대해서는 둘째,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셋째,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묻도록 한다. 이 질문은 하우젠의 VTS 교수방법에서 교사에게 요구하는 3가지 질문시항과 동일하다. 이 질문은 어린이들에게 미술작품을 감상하게 하고, 그 감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과 토론하도록 하는 것을 지도의 핵심이다. 이 방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을 자세히 보는 관찰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깊은 관찰에 의한 발견과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다. 그런 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언어로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즉, 그의 감상지도 과정은 '관찰에 의한 발견->사고->언어에 의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과거의 일반적 감상 방법은 교사나 미술관 스태프들이 작품을 해설하고 학생과 관람자들은 조용히 그것을 경청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아레나스의 대화 중심 감상법은 먼저 작품을 자세히 살피고, 다음은 자기 나름대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난 후 이를 정리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한다. 또한 미술작품에 대

한 지식과 해석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와의 대화를 조직화하여 교류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3-3. 대화형 미술 감상 진행 결과

대화형 미술 감상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

첫째, 미술에 대하여 지식도 늘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술작품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미술관에 가셔도 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둘째, 미술 감상의 체험을 통하여 관찰력이 높아지고, 관찰에 의하여 작품에서 수집한 정보를 스스로 분류하여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이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다는 것이다.

셋째, 대화중심의 감상은 미술작품의 내용을 관찰, 발견하여 이를 기술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보다 적절한 어휘를 동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의식의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던 어휘까지도 살려내어 구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문장력과 독해력이 향상되었으며 어휘 사용수도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보다 더 풍부해졌다.

넷째, 미술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자신과 다르게 보는 법을 수용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고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한 비판력을 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술비평이란 바로 타인의 사고방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⁶⁾

이와 같이 미술 감상은 어린이의 지적 성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험을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작품을 보고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경험을 통하여 평소 학습에 무기력한 어린이들의 학습 의욕과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다른 교과역의 학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교육적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화형 미술 감상법의 실천방법

대화형 미술 감상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2008년 개정 발표한 일본의 소학교 학습지도요령과 교사들을 위한 '미술교사들을 위한 실천 가이드 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습지도 요령을 살펴보고, 들

14)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시공사, p.150

15) 전계서, p.148

16) 전계서, pp.149-150

제로 감상교육 지도를 위한 '미술교사들을 위한 실천 가이드 북'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3-1. 일본의 2008년 소학교 학습지도 요령

3-1-1.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경위

지식기반사회, 글로벌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대를 '살아있는 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학력, 풍부한 마음, 건강한 신체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시된 일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¹⁷⁾ 조사 등 각종 조사 결과,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을 묻는 독해력과 기술식(記述式)문제, 지식·기능을 활용하는 문제와 독해력 중심으로 학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확대되어 있다는 점, 자신감의 결여나 스스로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체력의 저하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대적인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원의 자질·능력의 향상이나 교육 조건의 정비를 비롯한 교육과정 기준 전체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7가지 학습지도요령 개선 방향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7가지 학습지도요령개선 방향

이 과제를 근거로, 첫째 개정 교육기본법 등에 입각한 학습 지도 요령 개정, 둘째 '사는 힘'이라고 하는 이념의 공유, 셋째 기초적·기본적인 지식·기능의 습득, 넷째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육성, 다섯째 확실한 학력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업시수의 확보, 여섯째 학습 의욕의 향상이나 학습 습관의 확립, 일곱째 풍부한 마음이나 건강한 신체를 기르기 위한 충실한 지도¹⁸⁾를 기본 과제로 하는 7가지 학습지도요령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PISA의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의 결과

에 대한 폐단을 지양하고 살아 있는 지식을 획득하여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교육으로 작은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1-2. 도화 공작과 개정 취지

1) 개선의 기본방침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동시에 2008년 1월 중앙 교육 심의회의 답신(答申)에 명기된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미술과 관련 교과목 개선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화 공작과, 미술과, 예술과(미술, 공예)는, 창조하는 즐거움을 느낌과 동시에, 사고·판단하고 표현하는 조형적인 창조 활동의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 생활 속의 조형이나 미술의 기능, 미술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삶 전반에 걸쳐 이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태도를 양성하는 것 등을 중시한다.

둘째, 어린이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단계별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질과 능력, 학습 내용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셋째, 창조성을 키우는 조형 체험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형태나 색채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생활이나 사회 속에서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르고, 생활을 아름답고 풍부하게 하는 조형이나 미술의 기능을 실감하도록 지도한다.

넷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기쁨을 맛보게 함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그에 대하여 사고하는 힘을 길러 자신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의거하여 서로 비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 지도를 한다.

다섯째, 미술 문화의 계승과 창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작품의 좋은 점이나 아름다움을 주체적으로 맛보는 활동이나 일본의 미술과 문화에 관한 지도를 더욱 충실히 한다.

2) 개선의 구체적 방향

위에서 언급한 개선 기본방침에 따라 수립한 초등학교 도화공작과 개선의 구체적 방향은 표현이나 감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창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함과 동시에, 감성, 상상력, 신체적 감각 등을 동원하여 조형적인 창조 활동의 기초적인 능력을 높여준다. 이러한 능력은 생활이나 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태도를 길러주어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개선한다.

첫째, 자신이 자질이나 능력을 육성함으로써 그것

17) PIS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관 하에 199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PISA 참여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을 측정하여 각국 교육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고, 각국의 교육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비교 연구임

18)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icsFiles/afiedfile/2009/06/16/1234931_008.pdf

이 표현이나 감상의 과정에 명확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하며, 그러한 능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한다. 또, 아동이 자신의 행위나 감각을 기초로 형이나 색, 이미지 등을 활용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활이나 사회와 관련된 조형물을 만들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신체적인 감각을 살려 재료나 도구를 활용해 무엇을 만들거나, 주변의 형태나 색, 환경 등에서 감지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활동을 아동의 발달에 따라 정리한다.

셋째, 좋은 점이나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는 기쁨을 맛봄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친구와 함께 생각하고, 느낀 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고, 좋은 점이나 아름다움 등을 판단하는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생활 속의 조형이나 자국(일본)적인 친밀감이 높은 표현에 관한 학습에서는, 작품의 좋은 점이나 아름다움을 주체적으로 맛보고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초등학교 도화 공작과의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이상과 같은 개선의 기본방침 및 개선의 구체적인 목표 사항에 근거하여 개정을 실시하였다.¹⁹⁾

3-1-3. 도화공작과의 목표 및 내용

도화 공작과에서는 표현 및 감상활동을 통하여, 감성을 일깨우고 창조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동시에, 조형적인 창조활동의 기초 능력을 키워, 풍부한 정조(情操)²⁰⁾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의 목표는 아동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키워, 아동이 스스로 창조의 기쁨을 맛봄과 동시에, 조형적인 창조 활동의 기초적인 능력을 길러, 생활이나 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이러한 능력은 풍부한 정조, 아름다운 것, 뛰어난 것을 접했을 때 감동을 느끼게 하며, 풍요로운 감성과 도덕적·예술적·종교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진 복합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기여한다. 도화공작과의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시하는 내용은 그림3 같다.



[그림3] 도화공작과의 목표

첫째, 표현 및 감상 활동을 시행한다

도화 공작과 학습 활동은 크게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으로 나뉜다. 표현 활동이 아동이 느낀 것이나 상상한 것 등을 조형적으로 나타내는 활동이라면, 작품에서 좋은 점이나 아름다움을 느끼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감상 활동이다. 그러나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영역을 보충해주고 심화시켜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배가시킨다. 이는 아동에게 표현이나 감상의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교과목의 목표를 실현하는 도화 공작과의 활동을 특성을 말해주고 있다. 두 영역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감성을 함양하게 되고, 창조의 기쁨을 맛보게 되며, 조형적인 창조 활동의 기초적인 능력을 길러, 풍부한 정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감성을 일깨운다.

‘감성을 일깨운다’는 것은 새롭게 추가된 문장이자, 이것은 표현 및 감상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감각이나 사고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시한 것이다. ‘감성’은 여러 가지 대상이나 사상을 마음에 감지하는 기능인 동시에, 지성과 더불어 창조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이다. 표현 및 감상 활동에 있어서 아동은 시각이나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여 형태나 색, 이미지 등을 파악한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것을 실마리로 아동은 새로운 발상을 하거나 기능을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와 교류하여, 주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좋은 점이나 아름다움 등을 감지한다. ‘감성을 일깨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동의 감각이나 감정, 표현의 생각 등, 자신의 감성을 충분히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창조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

‘창조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은 감성을 일깨워 작품을 만들거나 보는 것이 기쁨이며 즐거운 것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창조의 기쁨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아동의 욕구를 채워줌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새로운 것이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즐거움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기쁨은 친구나 친밀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한층 배가된다. 창조의 기쁨은 형태나 색 등에 대한 호기심, 재료나 용구에 대한 관심, 창조 활동에 대한 의욕으로 연결된다. 또한 한 개인

19)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icsFiles/afieldfile/2009/06/16/1234931_008.pdf

20) 정서가 더욱 발달되어 지적이고 고차적인 복합적인 감정. 아름다운 것, 뛰어난 것에 접해 감동하는, 정감 풍부한 마음. 도덕적 예술적 종교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진 복잡한 감정

의 '조형적인 창조 활동의 기초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 이는 '만들어 내는 기쁨을 맛본다'는 학년의 목표에도 부합되는 개념이다.

넷째, 조형적인 창조 활동의 기초 능력을 기른다.

여기에서는, 표현 및 감상의 활동을 통하여, 육성해야 할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조형적인 창조 활동'이란, 자신의 생각을 형태나 색 등으로 나타내거나 좋은 점이나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활동이다. '기초 능력'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상이나 구상, 창조적인 기능, 감상 등의 능력을 말한다. 발상이나 구상의 능력은 생각이나 상상, 계획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형태나 색, 이미지 등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창조적인 기능이란 재료나 도구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창안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감상의 능력은 작품을 만들거나 보거나 할 경우에 작용하며, 아름다움 등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들은 아동이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 자연이나 환경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활동하면서 체득된다.

다섯째, 풍부한 정조를 기른다.

도화 공작과가 목표로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정조란 아름다운 것이나 뛰어난 것에 접하여 감동하는 정감, 풍부한 마음을 말하며 정서 등과 비교해 더욱 복잡한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도화 공작과에 의해서 길러지는 '정조'는 좋은 점이나 아름다움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사고나 감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교육에 의해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며 풍부한 인간성을 양성하는 것이다. 도화 공작과의 학습은 스스로의 감성을 일깨우고 조형적인 창조 활동의 기초 능력을 발휘해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을 함으로써 창조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좋은 점이나 아름다움 발견하게 하고 생활이나 사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함과 동시에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나 예술을 창조하려는 풍부한 마음을 갖게 한다.²¹⁾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의 목표와 도화 공작과의 목표를 보면 일본의 미술교육 과정에서는 감상 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소학교 학습 지도 요령은 우리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22)의 총괄 목표를 비롯하여, 미술교과에서 추구하는

목표, 감상영역의 중요성 확대 등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사회, 문화, 역사적인 배경도 다른 상황에서 보여 지는 교육과정의 유사성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느 국가든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일본에서는 전국 학교에서 대화형 미술 감상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자신에 대하여 창조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일본의 도공·미술 교사를 위한 실천 가이드 북

대화형 미술 감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품 선정, 디스플레이, 프로그램 진행, 이 세 가지가 중요함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어떤 연구자는 그러한 파실리테이터²³⁾의 역할은 누구라도 가능하다고 하며, 우에노 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다 효율적이며 깊이 있고 폭 넓은 진행을 위해

는 다른 부분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10가지 중 다음 2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미술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미적 감수성을 높이고 탐미적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감상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술교과의 총괄 목표로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적 대상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미술 감상 영역의 내용체계로 미술의 주제, 양식, 종류, 구조 등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시대별, 지역별, 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미술품 감상하기로 나누고 있다.

넷째, 교수 학습 방법으로 제시한 7가지 중 2가지를 들어보면 '미적체험'은 현장 학습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고 미적인 안목을 기르도록 하며 표현 및 감상 영역을 고려하여 지도 한다. 감상은 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감상 관점을 선정하여 활용하며 미술용어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 이를 활용하며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권장한다.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존중한다. 이렇게 7차 교육과정에서도 통합된 열림 마음과 통합된 사고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감상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 오미령, 비평적 사고능력을 위한 「그림읽기」 미술 감상교육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26-27)

23) 감상자와 작품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자에 대한 용어로는 파실리테이터(facilitator), 네비게이터(navigator), 토크(talker), 사회자, 진행자 등이 사용되고 있다.

21)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icsFiles/afiedfile/2009/06/16/1234931_008.pdf
22)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미술 감상이 어

서는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미술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실천 경험이 있는 진행자가 있어야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술 감상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특정한 프로토타입이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에노는 미술 감상교육을 효과적으로 행하고,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하여 '대화형미술 감상교육 : 도공·미술 교사를 위한 실천 가이드 북'²⁴⁾을 개발한 것이다. 이 가이드 북은 수업 시작을 위해 교사가 준비해야 할 내용부터 마지막 평가단계까지 일목요연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1. 수업 전에

미술 감상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사가 수업 시작 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 사항은 그림4와 같다.



[그림4]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

1) 감상 수업을 위한 작품선정

감상 대상은 미술작품 외에 아동의 작품, 제작 과정이나 재료 뿐 만 아니라 문화유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 단계나 감상 경험 등 수업을 받는 대상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여 '학습지도요령'과 학교전체의 '교육목표'나 '교과의 연구테마'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업의 목표에 적절한 작품을 선정한다.

2) 실태파악

이것은 '아동은 작품을 어떻게 볼까'라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아동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경향,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업을 실시할 학급의 아동들의 얼굴을 떠올려가며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동의 특징, 이 아이는 조용한 아이인지, 아니면 튀고 싶어 하는 아이인지, 발표를 잘하는 아이는 누구인지, 독특한 생각을 하는 아이는 누구인지 등 개개의 성격에서 생각하는 타입까지를 파악해야 한다.

3) 시뮬레이션

아동의 발언에 대하여 예측하고 교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생각해 가며 가상 수업의 흐름을 구성해 본다.

첫째, 아동의 견해를 기초로 수업 교재로 사용할 작품 사진을 준비한다. 우선 작품을 보는 아동의 소박한 발언을 예측해 보고, 그 아이라면 어떤 말을 할까를 생각한다. 생각난 발언을 작품의 사진의 주위에 메모해 간다.

둘째, 다양한 시점에서 작품을 보고, 예상되는 발언을 모두 기입한 후, 분류한다.

셋째, 몇 가지의 도입 방법을 생각하고, 흐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한 후, 분류 체계를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고, 그 후의 흐름을 설정한다. 도입 방법의 수만큼 흐름은 태어난다.

4) 지도안 정리

첫째, 먼저 학생의 발언을 작품사진 주위에 생각나는 대로 메모한다.

둘째, 랜덤하게 생각한 예상되는 학생의 발언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셋째, 학생의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을 할까를 생각한다. 이후의 대화의 진행도 이와 같이 생각해서 진행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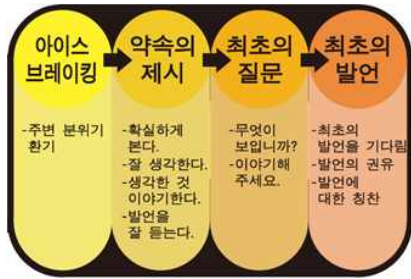
5) 환경설계

수업을 교실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작품은 디지털 화상을 사용한다. PC,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준비한 후, 스크린에 비춰지는 영상을 적당한 크기로 조절한다. 주변이 너무 어두우면 선생님과 1대 1 대응이 어렵게 된다. 대화는 말에 의한 정보 교환뿐 만이 아니라 말의 속도나 억양,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나 행동, 숨결 등 비언어적인 행동이 완수하는 역할이 크다. 따라서 스크린에 가까운 편은 어렵게 하고, 뒤의 측면에서 빛이 들어가는 환경설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2-2. 수업을 시작하는 방법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수업을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수업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대화형 미술 감상 수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4가지 포인트는 그림5와 같다.

24) 上野行一(2008), 對話のよる鑑賞教育 : 図工美術教師のためのガイドブック, 光村図書出版, pp3-19(이 논문 3-2는 감상 교육의 실천적 자료로서 가이드 북을 소개하기 위하여 번역, 요약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밝히며, 이하 내용의 각주는 생략한다.)



[그림5]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4가지 포인트

1) 아이스 브레이킹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배려해야 할 것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 분위기를 환기시킴으로서 아동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먼저 교사가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실마리로 대화의 위밍업을 한다. 「오늘 아침에 비 정말 대단했지」, 「운동회 연습 잘되고 있어?」 라고 하는 정도로 시작해도 좋다.

2) 약속의 제시

처음으로 대화형 감상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수업에 정답은 없어요. 좋은 의견이나 재미있는 견해는 있지만, 잘못된 의견이나 이상한 견해라는 건 없으니까, 작품을 잘 보고 자신이 느낀 것이나 생각한 것을 서로 편하고 즐겁게 발표해 보도록 해요.」 라고 이 수업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수업에서의 약속을 제시한다. 첫째, 확실하게 보고, 둘째, 잘 생각하고, 셋째, 손을 들고 생각한 것, 느낀 것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넷째,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잘 듣는다. 이것은 저학년 아동에게 해당되는 사례로 이러한 형태를 기본으로 해당 학년, 각각의 발달의 단계에 상응하는 약속을 제시한다.

3) 최초의 질문

수업이 시작되면 30초 정도 차분히 작품을 탐색할 시간을 준다. 이 때 선생님이 서는 위치도 중요하다. 선생님은 아동의 얼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최초의 질문을 한다. 「무엇이 보이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작품의 경우라도 이 질문으로 시작한다. 횡수를 거듭할수록 이 질문의 의미가 아동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이다.

4) 최초의 발언

질문을 하고, 기대했던 반응이 곧바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침묵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침묵은 아동들 입

장에서 보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거나 혹은, 발언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중얼거리거나, 가만히 응시하거나, 머리를 가우뚱하는 등의 아동을 반응을 지속적으로 주목한다. 특히 눈이 마주친 아동은 사실은 말하고 싶은데, 주위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언을 억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선이 마주치는 아이에게는 「자, 이제 한번 들어 볼까?」 라고 발언을 권유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나온 최초의 발언은 용기가 있는 발언이다. 끄덕이면서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한다. 「아, 정말 네가 말하는 대로다. 그렇게 보이네. 과연!」 이라고 칭찬하면, 그 아이는 칭찬받은 것을 기뻐하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는 좀더 진지하게 응시하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주위의 아동들도 「저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구나」 라고 수업의 형식을 이해함으로써 다음 발언을 준비하게 된다.

3-2-3. 수업의 포인트

수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동들의 발언에 대한 한 교사의 마음가짐이다. 아동들의 발언에 대한 교사의 반응에 따라 수업은 흥미진진하고, 활기를 띄게 될 수도 있고, 지루하고 가라앉은 수업이 될 수도 있다. 보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아동의 발언에 대한 교사의 마음가짐은 그림6과 같다.



[그림6] 발언에 대한 교사의 마음가짐

1) 발언에 대한 마음가짐

첫째, 발언을 유도하는 능숙한 듣기

① 고개를 끄덕임

마음속 이야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이야기에 동조해 가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은 발언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② 미러링

이야기하는 아동과 표정, 동작, 이야기의 흐름을 맞춰주는 것이다.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아동에게는 웃는 얼굴로, 진지한 표정의 아동에게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는다. 천천히 이야기하는 아동에게는 천천히 응답하고, 목소리가 큰 아동에게는 선생님도 「그렇구나」 혹은 「그렇네」라고 큰 목소리로 답해 준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들어주는 것을 실감하고, 선생님이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③ 반복

아동의 발언을 선생님이 반복하는 것이다. 자신의 발언을 반복해 주는 것으로, 아동들은 보람을 느낄 것이다. 아동의 발언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발언을 확실히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길게 이야기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선생님 자신의 듣기 능력도 요구된다. 특히 소리가 작은 아이나 말이 빨라 알아듣기 어려운 아이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특히 효과적이다. 끄떡임, 미러링, 반복, 이 모든 것이 효과적인 카운슬링을 위한 기본 요소로서 이러한 행위는 상대와의 동일시를 촉진시켜 신뢰감이 쌓여서 발화가 촉진된다.

둘째, 의견을 칭찬한다.

칭찬은 발언자에게 만족감을 주어 생각하고 발언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준다. 그러나 진심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표면적인 동의나 칭찬은 공허할 뿐이다. 이것은 어떤 수업 테크닉에도 통하는 기본이므로 항상 유의해야 한다.

셋째, 소정리를 한다.

수업을 시작하고 몇 가지 의견이 나온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발언을 되돌아보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을 소정리라고 한다. 소정리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이것을 통해 듣다 놓친 의견을 알 수 있고, 의견들 간의 연결을 의식하게 된다. 수업의 도입부분에서의 소정리는 지금 무엇을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전원에게 확인하는 것이며, 전원을 같은 이야기의 흐름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의견을 분류하거나 정리할 때에는, 통상의 수업과 같이 칠판을 사용해도 좋다. 대화의 리듬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아동들의 실태에 따라 판서는 오히려 유효한 수단이 된다.

2) 감상 수업의 세 가지 원리

대화에 의한 감상 수업은 첫째, 수용하는 것 둘째, 대화를 조직화하는 것 셋째,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 등의 세 가지 원리이다. 이 원리들은 선생님의 수업자세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첫째, 수용하는 것

<수용>은 발언을 공감적으로 받아들여 채택하는 행동이다. 전원이 의견을 말해주듯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전원의 참가를 재촉

하는 것. 이것이 발언에 대한 마음가짐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아동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선으로 작품을 보는 것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실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근저에는 아동들에게의 강한 신뢰가 없으면 안된다. 아동의 발언을 진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듣지 않는 이상 수업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아동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들이 알려고 하는 의욕을 소중히 하는 것, 즉 아동들과 함께 생각해 가려는 태도가 <수용>하는 자세이다.

둘째, <교류> 발언으로부터 대화를 조직화하는 것.

대화에 의한 미술 감상의 수업에서는 작품의 의미나 가치를 해설하지 않고, 질문을 던져 아동들의 사고와 대화를 재촉한다. 작품의 의미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역은 아동들이다. 작품의 견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발언의 <교류>에 의해서, 하나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해석의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견해가 공통되는 부분과 다른 부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해석을 객관화해 나갈 수 있다. 그 결과, 미술 해석에 대한 고정화된 관념이 깨어진다. 교사의 역할은 이러한 의의를 가지는 대화를 조직화해 나가는 것에 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것을 서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작품의 의미나 가치, 흥미를 느끼면서 세계를 파악하는 경험의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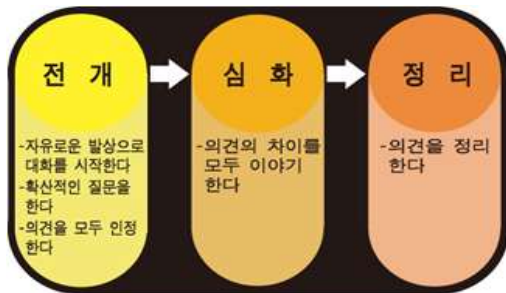
셋째, <통합> 조직화된 대화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재촉하는 것

자신의 해석(가치의식)과 상대의 해석(가치의식)을 비교, 음미하여 보다 좋은 해석(가치의식)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자신의 해석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해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요구된다. 교과서나 안내책자에 실린 작품의 의미나 해석을 소개 하는 것으로 수업의 정리를 대신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대화를 했는지 모르게 된다. 수업으로서의 대화는 작품을 보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오락이 아니다. 수업의 성과로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공유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수업의 정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아동들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 화제가 된 것을 중심으로 깊게 해석해 간다. 선생님은 화제의 폭과 깊이에 맞춰 수업의 흐름을 잡아 아동들의 발언을 기초로 작품 해석을 정리한다. 의미는 그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같은 작품

을 감상해도 때와 장소에 따라 대화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 두 번 다시 같은 내용의 수업은 할 수 없다. 정리는 수업의 발자취이다.

3) 대화의 조직화

기본적으로 대화에 의한 감상의 수업 과정은 전개, 심화, 정리의 3단계로 진행된다. 이들은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라, 최초의 전개 단계 중에도 심화 부분이 있고 간단한 정리를 하거나 또 단계가 앞으로 진행하거나 뒤로 되돌아가기도 하는 데 유의한다. 감상 수업 과정의 3단계는 그림7과 같다.



[그림7] 감상 수업 과정 단계

첫째, 전개 단계에서 ①은 최초의 발언, ②는 최초의 질문, ③은 <수용>과 각각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둘째, 심화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의견의 차이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엇이 보입니까?」라는 확산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차이는 각자의 느끼는 방법, 발상의 차이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의견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업에서 다루는 대화는 토론과는 달리 어느 쪽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행위가 아니다. 대화의 목적은 자신의 해석이나 가치 의식과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가치 의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음미하고, 보다 좋게 만들어 가는 데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공통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정리하여 아동·학생에게 제시하고 그것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셋째, 정리의 단계도 <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3-2-4. 대화의 지도

대화의 지도란 의견을 다루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교사의 언어적인 지도 행위를 그 성격에 따라 분

류한 것이며, 그림8과 같다.



[그림8] 교사의 언어지도 행위의 7가지 분류

첫째, 나열한다.

「지금 나온 의견은 A에 대한, B에 대한, C에 대한 것이군요。」와 같이 발언을 단순하게 반복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각각의 발언에 관련성이 희박하다. 자신이 느낀 것이나 생각한 것을 수업의 흐름과 관계없이 모두가 제각각 말하기 때문이다. 단지 자신의 생각을 교사에게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이런 경우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하게 되풀이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둘째, 비교한다.

「A군은 이렇게 말했지만, B양의 의견은 그렇지요。」라고, 다른 의견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비교함으로써 작품을 보는 시각이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전원에게 검토하게 하여 대화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동시에 견해의 다양성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셋째, 입장을 바꾼다.

「A군은 이렇게 말했는데, B양, 왜 그렇지 않겠어요?」라고, 발언자와는 다른 주위 사람에게 의견의 근거를 생각하게 한다. 원칙대로 한다면 의견을 말한 본인에게 「어디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나요?」라고 근거를 묻고 파고들어가야 할 것을 다른 아동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다. 아동으로서도 입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경험은 자신의 견해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연결한다.

관련이 있는 복수의 의견을 하나의 의견인 것처럼 정리해 준다. 다른 의견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참가자들 속에서 일체감이 생겨난다. 수업이 일단락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대화의 진행 상태가 정리되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특히 대화의 진행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다섯째, 나눈다.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분위기가 혼란해지는 일이 있다. 그때 「여러분의 의견은 3가지로 나눌 수 있군요。」라고 의견을 정리하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칠판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여섯째, 뒤혼든다.

아동들의 의견에 대하여 교사가 다른 각도에서 견해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지금쯤은 전쟁 상황입니다.

다들 슬프다, 무섭다, 너무 심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와 같이, 그 자리에서의 의견의 흐름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더 깊이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대화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대화가 정체되어 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좋은 자극이 된다. 뒤흔들기는 교사와 아동들 사이에 '가르치는 사람→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주종 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또 빈번하게 뒤흔들기를 하게 되면 교사 주도의 수업으로 빠지거나 아동들이 교사에게 유도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곱째, 되돌린다.

화제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는 「잠깐, 아까 ○○군의 의견으로 되돌아갑시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상대가 저학년 아동일 때에는 감상을 계기로 자신의 경험까지 말하는 일이 있다. 그것을 일단은 다 들어주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학생들도 말을 꺼내기 시작하여 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교사의 언어적인 지도 행위는 전체적으로 대화를 촉진시키는 내비게이션과 교류를 촉진하는 내비게이션으로 분류된다.

3-2-5. 발언을 분류하는 방법

발언은 그 질(質)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수업을 할 때에도 발언의 분류가 필요하다. 발언을 분류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며 그림 9와 같다.



[그림9] 발언을 분류하는 3가지 관점

첫째, 표상된 대상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본 것에 대한 발언이다. 모양과 색, 장면의 구성 등 작품의 표면을 보고 거기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에 대한 발언이다. 예를 들면 「꽃이 피어 있습니다.」라는 발언이다. 수업의 초기 단계에는 이러한 작품의 장면에 관한 관찰 결과에 대한 발언이 많이 나온다.

둘째, 유인된 감정이라는 것은 작품으로부터 받은 느낌에 대한 발언이다. 작품의 표면을 보고 받은 인상, 호감과 혐오감, 외포(畏怖)와 감명 등에 관한 발

언이다. 예를 들면 「밝은 느낌이 듭니다.」라는 발언은 인상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꽃이 피어 있고 있어서 밝은 느낌이 듭니다.」와 같이 관찰한 것과 작품에 대한 느낌을 합쳐서 발언하는 일도 적지 않다. 교사는 머릿속으로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 둔다. 관찰과 거기서부터 배어나온 감정은 복잡하다. 같은 꽃을 보아도 「마음이 놓인다.」고 안도감을 느끼거나 「벌써 봄이구나.」라고 느끼기도 하는 등 사람에 따라 제각기 미묘하게 다르다.

셋째, 표출된 세계라는 것은 본 것을 바탕으로 생각한 것이다. 장면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표상된 대상의 상징성을 생각하거나 주제에 대하여 생각한 것에 관한 발언이다. 예를 들면 「꽃은 인생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한 경우, 표상된 대상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작품 전체와 꽃의 관계를 생각하여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수업에서는 이처럼 상징이나 비유를 깊이 생각한 발언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발언을 질에 따라 분류하면 아동이 작품을 보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지금 어떤 질(質)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보인다. 그러나 분류의 관점은 다양하며, 반드시 이 방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진행자 역할로서 발언의 교동정리를 하는 것이고, 아동의 발언을 관련짓거나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3-2-6. 평가의 관점

첫째, 목표와 내용으로부터 평가 기준을 작성한다. 다음의 내용은 초등학교의 감상 능력에 관한 연구의 성과로부터 도출된 목표이다. 수업을 할 때에는 학교 전체의 교육 목표와 교과와 연구 테마, 표현 수업과의 관련, 지역과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관한 지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실태에 맞는 평가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목표와 내용의 구체 예

목표에 대하여는 신학습 지도 요령에 나와 있는 각 학년의 목표를 참조하여 대화에 의한 감상의 목표를 작성했다. 내용에 대하여는 관심이나 의욕에 관한 사항, 견해에 관한 사항, 해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화에 관한 사항 등 4가지 관점에서 정리한다.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에서는 무엇보다도 작품을 보는 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는 태도를 기

르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을 보고 느낀 것과 생각한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대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어 과목의 'A 말하기, 듣기'의 목표에도 유의한다.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에서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말하기와 중요한 것을 빼놓지 않고 듣기, 대화의 화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하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하여 감상 수업에서의 목표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듣기 위한 관심·의욕에 관한 사항도 국어 과목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한다.

① 목표

적극적으로 작품을 보는 태도를 기르고,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듣는 태도를 기른다.

② 내용

가. 관심·의욕

-적극적으로 주변의 작품 등을 즐겁게 관람하기

나. 작품을 보는 법

-모양이나 색, 표현 방법의 흥미로움, 재료의 질감 등을 느끼기

-자신의 감각을 통해 모양이나 색 등을 파악하기

-작품의 부분이나 전체의 느낌으로부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관람하기

다. 해석

-모양이나 색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미지 갖기

라. 대화

-느낀 것이나 생각한 것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 듣기

-보는 법이나 생각하는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기

셋째, 평가 방법

대화에 의한 감상 수업의 평가도 다른 교과와 수업에 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이다. 집단의 질에 준거한 상대평가가 아닌 학습 목표에 준거한 평가이고 개인이 발휘한 것과 그 변용에 관한 평가를 한다. 또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가 요구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자기 평가, 수업 평가, 학습 평가의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① 자기 평가

아동·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는 평가이다. 예를 들면 수업을 마칠 때 '작품에 대하여 알게 된 것'과 '할 수 있게 된 것' 등을 평가 카드에 문장으로 적도록 한다.

② 수업 평가

아동·학생에 의한 수업의 평가이다. '이해하기 쉬웠나요?' '재미는 있었나요?'와 같이 교재와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이다. 평가 카드에 자기 평가와 동시에 적도록 하면 편리하다.

③ 학습 평가

교사에 의한 아동의 평가이다. 수업 중의 발언이나 태도에서, 또 수업 후에 써 낸 감상의 정리 등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교사의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동에게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평가의 자료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 수업 중의 발언 내용을 통해 학습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나. 학습 카드 등의 기술(記述)을 통해 자기 평가, 학습 평가 자료로서 또 수업 중에 말하지 못했던 느낌이나 생각 등을 알 수 있다.

다. 수업을 기록한 VTR 영상자료를 통해 표정이나 태도로 언어화되지 않는 관심이나 의욕을 파악할 수 있다.

'교사들을 위한 실천 가이드 북'의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교육환경·제도적인 차이에서 오는 겹은 내용 분석을 통해 그 장점을 취사선택하여, 실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이 표현활동에 치우친 반면 감상영역에 대한 활동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고찰해보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려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첫째, 아레나스의 '대화형 미술 감상법'은 하우젠의 '심미적 발달 단계 이론'과 VTS 교수방법 및 교육학적, 인지심리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VTS는 감상자 중심의 대화를 통한 미술 작품의 독해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감상자가 주체적으로 작품의 관찰과 해석을 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비평적 사고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및 시각적 판별 능력은 물론 관찰 능력, 증거적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촉진된 토론 과정은 다른 교과와의 상호 작용과 민주적이며 협력적인 문제 해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아동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레나스의 '대화형 미술 감상법'은 아동들이 자신의 견해,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기의 상대화나 다른 사람의 이해를 촉구 받는 경험을 하게 한다. 그것은 인성교육이나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가 요구되는 즈음 지극히 중요한 교육적 경험을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미술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술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으며, 미래의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소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과 현재 일본 아동들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하고 지원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의 초등교육국 교육과정과 교과조사관인 오쿠무라 다카아키(奥村高明)가 우에노와 더불어 대화형 미술 감상의 보급 및 실천을 위해 연구 노력을 하였다는 사례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넷째, 우에노의 '교사를 위한 실천 가이드 북'은 교사가 미술 감상 교육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의 시작'에서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은 감상지도는 어렵다는 고정관념과 감상 교육 방법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교사들의 감상 교육 수업의 실천 자료로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술 교육 현장에서 '미술 교사들을 위한 가이드 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그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자료를 개발·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세분화되어진 실천 방안이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에 실행되어진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 풍부한 상상력, 명쾌한 자기 표현력 등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술 감상교육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현재의 미술교육이 미술의 내용과 기술을 익히는 교육이라는 한계를 넘어 감상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며, 명쾌한 자기 표현력을 신장, 총체적인 교육에 도움을 주고 학생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미술교육을 위한 가이드북을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술 감상교육이 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천의 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은 지속적인 연구과정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휘락 지음,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시공사, 2003, pp.148~150
- 임창재, 교육심리학, 학지사, 2005, p.227
- 오미령, 비평적 사고능력을 위한 「그림읽기」 미술 감상교육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上野行一, 對話のよる鑑賞教育 : 図工美術教師のためのガイドブック, 光村図書出版, 2008, pp.3~19
- 奥本素子, 協調的對話式美術鑑賞法:對話式美術鑑賞法の認知心理學分析を加えた新仮説、大學美術教育科 教育研究報告, Art Education(27), 美術科教育學會, 2006, pp.94~97
- 和田咲子·山田芳明, 美術作品鑑賞における對話と作品理解の關係についての一考察, 大學美術教育科 教育研究報告, Art Education(29), 美術科教育學會, 2008
- 吉田貴富, 初等教員養成における教科教育法の授業に關する實踐的考察, 大學美術教育科 教育研究報告, Art Education(27), 美術科教育學會, 2006
- 奥村高明 外, 英,米,中,韓の比較を通じた我が國の美術教育のカリキュラムに關する研究, 2008
- 文部科學省, 小學校學習指導解説圖畫工作編,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icsFiles/afieldfile/2009/06/16/1234931_008.pdf
- 美術による學び研究會、これまでの鑑賞教育、そして..., <http://artmanabi.main.jp/pg100.htmlc>
- Visual Understanding in Education, Art & Aesthetic Development, <http://www.vtshome.org/pages/art-aesthetic-development>
- Visual Understanding in Education, What is VTS, <http://www.vtshome.org/pages/what-is-vts>